

## 『韓客治驗』에 기재된 의안 연구

1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의사학교실 2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한의철학과  
3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한의역사학과 4경희대학교 사학과 강사  
서근우<sup>1</sup> · 오준호<sup>1</sup> · 서지연<sup>1</sup> · 김태은<sup>2</sup> · 홍세영<sup>3</sup> · 윤성익<sup>4</sup> · 차응석<sup>1</sup> · 김남일\*

### A Study on the Medical Records presented in 『HanGaekChiHeom』

1Dept. of Medical Histor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kyungHee University  
2Dept. of Oriental Medical philosoph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kyungHee University  
3Dept. of Oriental Medical Histor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kyungHee University  
4College of History, kyungHee University

Keun-Woo Seo<sup>1</sup> · Jun-Ho Oh<sup>1</sup> · Ji-Yeun Seo<sup>1</sup> · Tae-Yuen Kim<sup>2</sup> · Sae-Young Hong<sup>3</sup> · Seng-Yick Yun<sup>4</sup> · Wung-Seok Cha<sup>1</sup> · Nam-Il Kim<sup>1</sup>

『HanGaekChiHeom』 is a book that arranged the medical records left by a Japanese doctor Junso Higuchi who treated a group of diplomats from Chosun and questions and answers exchanged between him and Chosun's doctor ChoSoongSoo. There are 14 kinds of medical records here with treatments and prescriptions as well as the detailed descriptions about the name, age and symptoms of patients. Various diseases and symptoms are included among them such as burns, common cold, skin diseases, edemas, etc. The characteristics of Junso Higuchi seem to be affected by medicine in Ming Dynasty in China.

Key Words: HanGaekChiHeom, ancient diplomacy between Korea and Japan, medical record

## I. 서론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2003년에 실시한 동아시아 전통의학권 소재 한국본 의학문헌 공동조사연구과정의 일환으로 일본과 중국학자들의 협조를 받아 일본 전역에 산재해 있는 조선시대 의학 관련 사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40여종의 자료가 발굴되었다.<sup>1)</sup> 『韓客治驗』도 이들 자료중 하나로 1748년 조선 통신사

일행이 일본에 갔을 때 일본 의사 樋口淳叟가 자신과 조선의 良醫 趙崇壽 사이에 오간 문답을 기록한 책이다. 또한 여기에는 저자가 통신사 일행의 질병을 진료한 의안도 기재되어 있다. 이 의안들은 대부분 환자의 신상 정보와 증상 및 처방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므로 의안을 수집하고 분석하는데 있어 양질의 자료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의안 자체의 내용을 분석하는데 중점을 두고 연구하였으며 樋口淳叟가 주로 쓴 약재와 처방을 중심으로 그의 치료 경향을 고찰해 보았다.

\* 교신저자 : 김남일,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의사학교실, 02) 961-0672, southkim@khu.ac.kr

1) 車雄碩 외 2인, 桑韓醫談과 韓日醫學文化交流, 韓國醫史學會誌, 2004. 17(2). p. 74.

## II. 본론

### 1. 火傷 의안

조선통신사 수습하관 김복재(金福才), 나이가 38세

主火藥 4월 26일 양화(浪華)에서 일행이 머물던 본원사(本願寺)에서 봄 火藥 행사 중에 불이 갑자기 타올라 복재의 머리와 얼굴 가슴 배가 (불에) 타고 문드러져 10여일이 지났다. 무환천 배 위에서 그를 진찰해 보니, 머리와 얼굴 및 터럭이 모두 타서 문드러졌고, 가슴과 배, 손과 팔뚝의 피부가 터져 물이 흘러나왔으며, 밤낮으로 아프고 답답해 하고 음식을 먹지 못하였다. (이에 환자에게) 교맥면(蕎麥麵) 조금을 끓는 물에 넣어 복용하게 하기를 밤낮으로 두세 번 하였다. (그러나 환자는) 혀가 오그라들어 말을 할 수 없게 되었고 악취가 나서 가까이 갈수가 없었으며 六脈이 모두 虛細하고 대변이 막히고 소변이 깔끄러워 적게 나왔다. (환자의) 모양이 감히 쳐다볼 수 없는 지경이었다. 이것은 火藥의 맹렬한 독기가 내부를 공격한 까닭이다. 『外科正宗燒火門』에 나오는 四順清涼飲을 매 첩을 10돈으로 하여 20여첩을 투여하고, 瘍醫인 樞林氏가 外治法을 병행하였더니, 화독이 크게 물러났다. 이러한 뒤에 黃蓍, 當歸, 芍藥, 芍藥, 連翹, 黃芩, 黃連, 生甘艸를 같은 양으로 나누어 100여첩을 주었더니 피부와 살이 수렴되고 터럭이 자라나고 음식을 먹고 기거하는 것이 예전과 같아졌다.

〔朝鮮信使 隨扈下官 金福才 年三十有八 主火藥 四月二十六日 於浪華客館本願寺 春火藥時 火猝生而 福才頭面胸腹焦爛後 經十餘日 於無屍川舡中診之 頭面及毛髮共燒爛 胸腹手臂皮脫水流 日夜痛悶 絕飲食 僅以蕎麥麵 投白湯服之 日夜兩三度 舌縮而不得言語 惡臭不可近 六脈虛細 大便秘結 小水澀少 其形狀不堪見 是火藥猛烈之毒氣攻裏然也 因投外科正宗燒火門四順清涼飲每貼十錢 與二十餘貼 瘍醫樞林氏加外治 火毒粗退而後 以黃蓍當歸芍藥芍藥連翹黃芩黃連生甘艸各等分 與至百有餘貼 皮肉收斂 毛髮長 飲食起居復常〕

按) 이 의안에서 쓴 蕎麥麵은 메밀가루인데 東醫寶鑑에서는 이에 대해 “能發起諸瘡”<sup>2)</sup>이라고 하였다. 이는 메밀이 收斂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火毒이 發散되는 것을 막기 때문이다. 따라서 湯火瘡에 蕎麥麵을 먹인 것은 誤治이다. 四順清涼飲은 外科正宗에서 “治湯潑火燒, 熱極逼毒入裏, 或外被涼水所汲, 火毒內攻, 致生煩燥, 內熱口乾, 大便秘實者服”<sup>3)</sup>라고 하였는데 환자의 증상과 잘 들어맞는다. 火毒이 물러나자 生肌시킬 목적으로 黃芪, 當歸 등의 약재를 쓴 것이다.

### 2. 鼻痔 의안

부사도(副使道) 소속, 복강장(卜缸將) 정흥방(鄭興邦) 나이 35세.

몸이 마르고 얼굴이 희며, 성격이 급하다. 병을 얻어 수개월동안 낫지 않아 치료받고자 부탁하여 그를 진찰하였다. (병의) 연고를 물어보니, 올해 仲春에 부산 앞바다에서 돛을 올릴 무렵 콧구멍에 종핵이 생겨 나왔다 들어갔다 하기를 때 없이 하였는데, 이마에서 답답하게 열이 나고, 양 태양혈은 무겁게 아팠으며 心下가 답답하게 막힌 듯 하고 때때로 통증이 있었다고 한다. 또 가래섞인 기침을 하고 上氣하며 술과 음식이 맛이 없고 혀 위에 白苔가 있고 대변이 멎쳐 건조하고 소변 또한 붉고 잘 나오지 않았으며 六脈이 모두 洪數하였다고 한다. (그는) 자신이 평소에 허약하고 걱정이 많은데, 부산 앞바다에 있을 때 걱정거리가 있어 풀리지 않아, 그런 뒤에 이 병을 얻었다고 말하였다. 이것은 간경에 鬱熱이 쌓이고 肝火가 치성하여 脾氣가 抑鬱되어 (그로인해) 폐가 鬱火로 인해 혼증되어 생겨난 증상이다. 河間의 防風通聖散을 30여첩 주었더니 여러 증상이 평안해 졌다. 후에 補中益氣湯을 주어 조리하여 완전히 낫게 되었다.

〔副使 卜缸將 鄭興邦 年三十有五 形瘦色白性急 有病而數月不愈 因乞治診之 而問其故 彼曰今歲仲春釜

2) 許浚. 東醫寶鑑. 서울. 남산당. 1986. p. 684.

3) 陳實功. 外科正宗. 沈陽. 遼寧科學技術出版社. 1999. 四順清涼飲.

山海發帆頃 鼻孔生腫核 出沒無時 頭額煩熱 兩太陽穴  
重痛 心下痞塞 時發痛 痰咳上氣 酒食不美 舌上白胎  
大便結燥 小便赤澀 六脈洪數 其生平虛弱而疑惑多 在  
釜山海時 有思慮而不決 後得此病云云 是肝經貯鬱熱  
肝火熾盛 脾氣抑鬱而肺爲鬱火所薰蒸之症也 以河間防  
風通聖散 與三十餘貼 諸症平安 後與補中益氣湯 調理  
而全愈]

按) 이 의안은 鼻痔에 관한 것으로 東醫寶鑑에서  
는 “鼻痔者肺氣熱極日久凝濁結成”<sup>4)</sup>라고 하여 그 원  
인을 肺熱로 보았다. 肺와 大腸은 表裏 관계인데 大  
腸에 濕熱이 생기면 肛門의 痔疾이 되고 肺에 생기면  
鼻痔가 되는 것이다. 또한 東醫寶鑑에서도 防風通聖  
散을 처방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肺熱의 원인을 膏粱  
厚味인한 脾胃의 濕熱이 肺를 薰蒸한 것이라고 보았  
다.<sup>5)</sup> 이 의안에서는 환자가 思慮不決로 이 병을 얻었  
다고 하였으므로 결국 木剋土의 병리에 의해 肝鬱→  
脾鬱로 전해지고 이로 인해 升降이 실조되고 肺가 薰  
蒸되어 鼻痔가 생겼다고 본 것이다. 또한 증상과 脈  
이 實證이므로 먼저 防風通聖散으로 肺熱을 치료하  
고 補中益氣湯으로 脾胃의 升降을 조절하려 한 것으  
로 사료된다.

### 3. 酒風 의안

정사도(正使道) 소속, 기강중관(騎缸中官) 김치영  
(金致永) 나이 40여세.

4월 하순에 한열이 왕래하였는데, 아침에는 가벼  
웠다가 밤이되면 심해졌다. 음식을 먹지 못하여 교맥  
면(蕎麥麪) 조금을 끓는 물에 넣어 하루에 두 세 번  
씩 먹게하였다. 여러날 동안 그렇게 한 까닭에 몸이  
권태롭고 나른하게 말하였으며 어지럽고 上氣하고  
지내기가 불편하였고 허리와 대퇴가 시큰하게 아파  
서 구부렀다 폼다 할 수 없었다. 脈이 浮大하고 힘이  
없었으며 까담없이 땀이 났다. 환자가 말하기를 강한

바람이 부는 날, 크게 취하여 배 망루에서 잠을 자고  
난 이후에 병에 걸렸다고 말하였다. 내가 진찰해 보  
고 말하기를 옛 사람들이 말한 酒風이 이것이다라고  
하였다. 치영이 손바닥을 치며 탄식하여 말하기를,  
일전에 객관의 조선 의사에게 이미 진찰받았는데,  
(그가) 이것은 주풍병이니 삼가 수양해야 한다고 말  
하였는데, 東都에 도착하여 (당신에게 진찰받고) 당  
신이 말한 바가 조선 의사와 하나 같다고 하였다. (그  
가) 깊이 감화 받아 정중히 약을 먹을 것을 청하니  
내가 거절하지 못하고 補中益氣湯에 當歸를 빼고 芍  
藥을 넣고 사령산을 함방하여 10여제 주니 병이 나았  
다. 후에 의관을 바르게 갖추고 목숨을 살려준 것을  
감사하였다.

[正使 騎缸中官 金致永 年四十有餘 四月下旬 寒熱  
往來 朝輕夕重 絕穀 僅以蕎麥麪投白湯 用之日兩三度  
經數日然故 形體昏倦 而懶言語 眩暈上氣 起居不便  
腰腿酸痛 不能屈伸 脈浮大無力 自汗 患人言 烈風日  
大醉臥舡樓後得此病云云 予診之曰 古人所謂酒風是此  
致永拍掌嘆曰 曩於客館 韓醫某既診之曰 是酒風病也  
謹修養云 而赴東都即 公之所言 與韓醫之言 同一也  
深感稱伏乞服藥 予不忍辭 以補中益氣湯去當歸加芍藥  
合四苓散 與十餘貼病愈 後正衣冠謝活命]

按) 이 의안은 酒風에 관한 것으로 東醫寶鑑에서  
는 內經의 문장을 인용해 “黃帝問曰有病身熱懈墮汗  
出如浴惡風少氣此爲何病岐伯對曰病名酒風”<sup>6)</sup>라고 하  
였다. 또한 “酒風行步不前”<sup>7)</sup>이라고도 하였다. 이 환  
자는 술에 취해 바람을 맞고 병이 생겼다 하였고, 東  
醫寶鑑에 설명된 것과 비슷한 증상을 호소하므로 酒  
風임을 쉽게 알 수 있다. 환자가 술로 인해 濕熱이 생  
긴것인데 증상과 脈으로 볼 때 虛證에 가깝다. 즉 평  
소 환자가 氣虛한 상태에서 酒風을 맞아 濕熱이 생긴  
것이므로 補中益氣湯을 기본으로 泄瀉의 기본 처방  
인 三白湯의 의미로 芍藥을 추가하고 利水除濕의 의  
미로 四苓散을 合方한 것이다.

4) 許浚. 東醫寶鑑. 서울. 남산당. 1986. p. 239.

5) 許浚. 東醫寶鑑. 서울. 남산당. 1986. p. 239.

6) 許浚. 東醫寶鑑. 서울. 남산당. 1986. p. 125.

7) 許浚. 東醫寶鑑. 서울. 남산당. 1986. p. 369.

#### 4. 吐血 의안

종사도(從事道) 소속, 강관인(缸官人) 김수창(金守昌) 나이 30여세.

몸이 마르고 색이 검고 평소 술과 고기를 즐겨 먹었다. 5월 상순에 痰 섞인 기침을 하면서 검붉은 피 덩어리를 토해냈기를 밤낮으로 심하였다. 맥은 弦數하고 정신은 명료했다. (내가) 鬱火로 보고 약 여러첩을 주었으나 효과를 얻지 못하였다. 다시 犀角地黃湯에 貝母, 紫菀 등을 넣어 주었는데, 조금 차도가 있기는 하였으나 吐血이 그치지 않았으며 병자는 약효가 없어 지쳐있었다. 가만히 생각해 보건데, 옛 사람들은 넘쳐난 혈이 쌓여 마행할 때에는 먼저 下藥으로 (大便을 소통시키는) 下法을 사용하였다. 이를 보고 桃仁承氣湯 5첩으로 다시 여섯 차례 설사를 시켰더니 吐血이 멈추었고, 후에 四物湯에 黃連을 더하여 남은 열을 풀었더니 원래대로 회복되었다.

[從事缸官人 金守昌 年三十有餘 形瘦色黑 平生嗜酒肉 五月上旬 痰咳而吐出紫黑塊血 日夜無度 脉弦數 精神盛也 爲鬱火 與藥數貼 無守効 又犀角地黃湯加貝母紫菀之類與之 雖少愈 吐血不止 患人倦藥無効 謹按古人每治溢(?)血蓄妄 必先以下藥下之 因以桃仁承氣湯五貼 瀉下五六度 吐血止後 四物湯加黃連 解餘熱而復常]

按) 이 의안은 吐血에 관한 것으로 처음에 鬱火로 여겨 치료한 것은 脈이 弦數했기 때문이다. 東醫寶鑑에서는 王好古의 說을 인용하여 “衄嘔唾吐血爲上部血結……上焦則善忘宜犀角地黃湯”<sup>8)</sup>이라고 하였는데 犀角地黃湯을 쓴 것은 이에 따른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 두 치법에서 큰 효험을 보지 못하자 下法을 써서 치료하였다. 이는 熱毒이 血分에 오래 머물러 瘀血이 생긴 것으로 瘀血이 생기면 犀角地黃湯으로는 치료가 어려워진다.<sup>9)</sup> 이에 관해 東醫寶鑑에서

8) 許浚. 東醫寶鑑. 서울. 남산당. 1986. p. 107.

9) 犀角地黃湯이 瘀血을 치료한다고 설명한 책들이 있지만 실제 처방 구성으로 볼 때 血熱을 식히는 작용에 가깝고 破血

는 “熱毒入藏化爲瘀血從口吐出……輕者犀角地黃湯.

……重者桃仁承氣湯抵當湯丸”<sup>10)</sup>이라고 하여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 5. 傷寒少陽陽明症 의안

조필선(趙必善), 정사도(正使道) 소속, 기강관인(騎缸官人)으로 40여세.

5월 상순에 배 위에서 寒熱이 발생하였는데, 한기가 들 때는 열음과 같고 열이 날 때는 숫과 같아 때없이 바뀌었다. 머리가 아프고 속이 미식거리고 입이 써서 먹지 못하였다. 혀는 누런 태가 있고 헛소리를 하였다. (맥을 보니) 六脈이 모두 弦數하였다. 傷寒少陽陽明症으로 보고 小柴胡湯에 黃連解毒湯을 합방하여 6첩을 주었더니 열이 풀리고 음식을 점차 먹게 되었다. 목이 마르고 땀이 나고 때때로 바람을 싫어하여 補藥으로 조리시켰더니 평소와 같이 나왔다고 알려 왔다.

[趙必善 正使騎缸官人也 年四十餘 五月上旬於缸上 發寒熱 甚如水炭 往來無時 頭痛惡心 口苦不食 舌黃胎 謔言妄語 六脈弦數 爲傷寒少陽陽明症 與小柴胡湯合黃連解毒湯六貼 熱解飲食漸進 口渴自汗時時惡風 以補藥調理 告平愈]

按) 이 의안에서 少陽陽明證이라고 한 것은 환자가 傷寒 少陽病과 陽明病의 증상을 동시에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傷寒論에서 쓰인 뜻과는 거리가 있다. 원래 傷寒論에는 “少陽陽明者 發汗 利小便已 胃中燥煩實 大便難是也”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少陽陽明’은 병의 전변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나온 용어이다. 즉 太陽陽明과 함께 少陽陽明은 陽明病의 한 종류로 東醫寶鑑에서는 小承氣湯을 쓴다고 하였다.<sup>11)</sup> 이 의안에서는 小柴胡湯과 黃連解毒湯을 合方하여 사용하였는데 환자가 便秘의 증상이 없어서 承氣湯류를 쓰지 않고 實熱證에 쓰는 黃連解毒湯을 쓴 것으로 사료된다.

의 효능이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0) 許浚. 東醫寶鑑. 서울. 남산당. 1986. p. 108.

11) 許浚. 東醫寶鑑. 서울. 남산당. 1986. p. 401.

### 6. 赤痢 의안

서중정(徐重鼎), 부사도(副使道) 소속 기강관인(騎艇官人)으로 40세.

몸이 살찌고 얼굴이 검고 성격이 침중하며 술과 고기를 좋아한다. 5월 중순에 赤痢를 앓아 밤낮으로 대변보기를 10여차례 하였다. 그는 혼자서 조선 민간에서 이질을 치료하는데 사용된다고 전해지는 單方藥을 며칠 복용하였는데, 도리어 병세가 심해졌다. (그가) 약을 복용하고자 부탁해 와서 (내가) 그를 진찰하였다. 六脈은 모두 沈數하고 힘이 있었고, 속이 당기고 뒤가 무거웠으며 배 속이 꼬이듯 아프고 손과 발을 무겁게 느꼈다. 음식을 먹는 중에(혹은 끼니 중간에) 嘔吐를 하였고 소변이 붉고 잘 나오지 않았다. 不換金正氣散에 木香, 檳榔, 枳實, 生薑에 볶은 黃連을 3제 주었더니 이질이 멈추고 평안히 회복되었다.<sup>12)</sup>

[徐重鼎 副使 騎艇官人也 年四十 形肥色黑 性沈嗜酒肉 五月中旬 患赤痢 晝夜更衣數十行 彼自朝鮮俗間所傳之用治單方藥 數日無藥効 却而加病勢 因乞服藥診之 六脈沈數有力 裡急後重 腹中絞痛 手足沈重 飲食間嘔吐 小便赤澀 投不換金正氣散加木香檳榔子枳實姜炒黃連與之三劑 而痢止平復]

按) 이 의안의 赤痢에 대해 東醫寶鑑에서는 丹溪의 말을 인용해 “赤痢自小腸來濕熱爲本”라고 하였다. 환자 역시 술과 고기를 즐기고 異國에 와서 赤痢를 앓게 된 것이므로 水土不伏에 쓰는 不換金正氣散을 기본으로 痢疾에 두루 쓰는 木香, 檳榔과 濕熱을 치료하는 黃連 등의 약재를 加하여 처방했다고 사료된다.

### 7. 咳嗽 의안

유상필(劉尙弼), 부사도(副使道) 소속 북강중관(卜

12) 역자주) 맥을 ‘六脈’ 혹은 ‘脈’이라고만 하고, 부위별 맥상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그는 오장에 따라 맥을 보지 않고 전체적인 맥상을 진단에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艇中官)으로 49세.

몸이 마르고 얼굴이 검으며, 기침을 하여 목소리가 잠겨있고 안으로 열이 심하였다. 매번 기침을 할 때 양쪽 옆구리 아래가 죽을 것 같이 아프고, 밤에 편안히 잠을 이루지 못하여 몸이 지쳐 있었다. 음식이 줄어들고 숨쉴 때 헐떡거렸으며 대변을 잘 보지 못하고 六脈이 洪滑하면서 빠른 듯도 했다. 二陳湯에 天南星, 黃連, 梔子, 枳實, 貝母를 넣어 여러 첩 주었더니 모두 나았다.

[劉尙弼副使卜艇中官年四十有九 形瘦色黑 咳嗽聲重 內熱甚 每咳兩脇下弔痛 夜不能安眠 故形體勞 飲食減少 呼吸喘息 大便秘 六脈洪滑或數 與二陳湯加天南星黃連梔子枳實貝母與數貼全瘳]

按) 이 의안에서는 咳嗽를 다루고 있는데 脇下痛과 內熱의 증상이 동반되어 있다. 東醫寶鑑에서는 丹溪의 말을 인용해 “痰飲流注於厥陰之經亦能使脇下痛病則咳嗽氣急引脇痛.....咳引脇痛宜疎肝氣用青皮枳殼香附白芥子之類”라고 하였는데 이를 근거로 痰飲이 脇下痛과 咳嗽의 원인이 됨을 알 수 있다. 또한 內熱의 증상이 있으므로 二陳湯을 기본으로 疎肝하는 약과 清熱하는 약을 가한 것이다.

### 8. 漆疹 의안

김한걸(金漢傑)과 박이평(朴以平)은 종사도(從事道) 소속 강관인(艇官人).

5월 하순경 배 위에서 옷칠 작업을 하다가 漆毒을 이기지 못하고 漆疹이 발생하였다. (漆疹)은 붓고 가려운 뒤에 문드러져서 고통이 굉장하였으며 손, 발, 허리와 넓적다리가 모두 그러하여 걷는 것이 어려웠다. 사람들의 도움으로 洗藥, 膏藥으로 처치하였으나 조금의 효과도 없었다. (이들이) 치료를 청해와, 薄荷 두 근, 黃連 반 근, 黃芩, 黃蘗 각 10 각각 열 냇을 물에 끓여 식혔다가 漆瘡를 세척해 주고, 부추즙에 敷三白散을 섞어 한 냇 정도 사용하였더니 모두 나았다.

[金漢傑 朴以平 各從事艇官人也 五月下浣 於艇上

爲漆工 不勝漆毒發漆疹 爲腫痒而后潰爛 苦痛不常 手足腰腿皆然 行步艱難 被人扶洗藥膏藥 共無寸効 因乞治 以薄荷二斤黃連半斤黃芩黃蘗各十兩水煎 候冷而洗淨漆瘡而后 以葑汁調 敷三白散 各兩度悉愈]

按) 이 의안은 漆毒의 증상으로 이는 血分에 熱毒이 들어가서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薄荷, 黃連 등의 清熱藥을 이용해 씻게 하고 三白散을 바른 것이다. 여기서 三白散은 外科正宗의 처방으로 漆瘡이 생기면 부추즙에 개어 바르고 化斑解毒湯을 복용하라고 되어있다.

## 9. 漆疹 의안

김친운(金千云) 종사도(從事道) 소속 강하관(缸下官).

漆疹이 발하여 머리와 얼굴이 부어 눈이 떠지지 않으며 입술이 뒤집어졌다. 惡寒과 發熱이 번갈아 생기며 대소변이 막혀 잘 나오지 않았다. 六脈이 모두 大數하며 허리와 등에 통증이 있었다. 약떡기를 칭하여 荊防敗毒散 한 제를 끓여 한 번에 복용 하였더니 조금 땀이 나면서 안정되었고 漆疹도 따라 나왔다.

[金千云從事缸下官 發漆疹 頭面腫眼目塞反唇 寒熱往來 大小便秘澀 六脈浮大數 腰背疼痛 乞藥 荊防敗毒散一劑煎頓服 微汗安 漆疹從瘳]

按) 이 의안 역시 漆疹에 관한 것으로 表證이 있으므로 荊防敗毒散으로 發表시켜 치료하였다.

## 10. 感冒風寒 의안

김재재(金再齋) 정사도(正使道) 소속 기강중관(騎缸中官) 56세.

5월 하순 風寒에 감촉되어 惡寒과 發熱이 번갈아 생기며 머리가 아팠다. 입이 쓰며 혀에 白苔가 있었으며 四肢가 괴롭게 아프고 음식을 먹지 못하며 自汗이 있었다. 六脈은 모두 浮大하며 힘이 없었다. 힘써 일을 많이 한 상태에서 寒邪를 받은 것으로 보고, 補

中益氣湯에 葛根, 芍藥을 가하여 여러 첩 주었더니 여러 증상들이 절반으로 줄고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었다. 닭고기를 넣은 죽을 연이어 며칠 먹었더니 痰 섞인 기침이 위로 치받아 (가슴이) 괴롭고 답답하였다. 香砂六君子湯에 山查子, 芍藥, 貝母, 生薑을 넣고 투여하니 저절로 땀이 났고, 여러 첩 주었더니 모두 나았다.

[金再齋正使騎缸中官年五十有六 五月下旬 感冒風寒 寒熱往來 頭痛 口苦 舌白胎 四肢煩疼 飲食不入 自汗 六脈浮大無力 爲勞力感寒 與補中益氣湯加葛根芍藥數貼 而諸症減半 飲食漸進 以雞肉和粥 連日食之 痰咳上衝 覺煩悶 因投香砂六君子湯加山查子芍藥貝母生薑 自然汗 數劑完愈]

按) 이 의안은 환자가 勞力感寒하였고, 自汗하고 脈이 무력하므로 虛證의 感冒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補中益氣湯을 기본방으로 解肌할 수 있는 약제를 가하여 사용한 것이다. 그러나 아직 완전히 회복이 되지 못한 상황에서 닭고기 죽을 먹어 부작용이 생겼다. 이는 食復으로 東醫寶鑑에서는 “食復者傷寒新差胃氣尙弱若恣食飲不能化依前發熱”<sup>13)</sup>라고 하였다. 따라서 香砂六君子湯으로 補脾消導시키고 증상에 맞는 약제를 加減하여 처방한 것이다.

## 11. 脚氣 의안

곽통기(郭通起) 부사도(副使道) 소속, 북강중관(卜缸中官) 70여세.

몸이 살찌고 얼굴은 검었다. 6월 상순경, 왼쪽 무릎 아래에서 발바닥까지 국자같이 부어올라 통증 때문에 울부짖었으며, 안정을 찾지 못했다. 음식을 먹지 못하였고 피부에서 답답하게 열이 올라왔으며 六脈은 沈滑 혹은 數 했다. (이것은) 中焦에 濕痰이 있고 下焦에는 더욱 심한 병증이다. 除濕湯 열 첩을 주었더니 다리의 붓기가 반쯤 빠졌고, 順氣시키는 약으로 조리하였더니 평안해 졌다고 알려 왔다.

13) 許浚. 東醫寶鑑. 서울. 남산당. 1986. p. 399.

〔郭通起副使卜舡中官年七十餘 形肥色黑 六月上浣 左膝以下至足底 如斗腫起 疼痛啼泣 而坐卧不安 飲食不入 肌膚煩熱 六脈沈滑或數 中焦溼痰 下焦溼尤多也 與除溼湯十貼 足腫半減 以順氣劑調理 告平安〕

按) 이 의안은 脚氣의 증상으로 계절도 여름이고 환자 역시 肥濕한 체형이며 濕痰이 많은 것으로 보아 除濕湯을 처방한 것이다. 濕熱로 보아 黃柏類의 瀉火하는 약제를 쓸 수도 있었지만 노인임을 감안하여 順氣化濕하는 처방을 쓴 것으로 짐작된다.

## 12. 吐血 의안

김순평(金順平) 종사도(從事道) 소속, 기강관인(騎舡官人)으로 39세.

몸이 살찌고 얼굴이 검었으며 울체가 있었다. 6월 상순 허리와 등이 아프고 간혹 팔다리에 힘이 없었다. 기침을 하고 때때로 땀덩어리를 토해냈다. 맥은 細數하였다. 當歸, 芍藥, 黃連, 貝母, 黃芩, 半夏, 茯苓을 각기 같은 양씩 나누어 한 제로 만들어 세 제 주었더니 여러 증상이 나왔다. 吐血이 아직 그치지 않아 앞의 처방을 끊어다가 복용하기 직전에 童便 한 술잔 정도를 넣어 5첩 복용시켰더니 나왔다. 조선사람들은 血症을 앓으면 童便을 즐겨 먹는데, 다른 증상에서도 童便을 먹는 것은 풍속이 그러해서이다.

〔金順平從事騎舡官人也年三十九 形肥色黑有鬱滯 六月上旬 腰背痛 間四肢柔弱無力 咳嗽 時時吐出塊血 脈細數 以當歸芍藥黃連貝母黃芩半夏茯苓各等分爲劑 與三劑 諸症愈 吐血未止 以前方煎 臨服加童便一卮 服五貼 復常 韓人患血症者 好必服童便 其餘亦動服童便是習俗然歟〕

按) 이 의안은 吐血에 관한 것으로 脈狀이나 童便을 쓴 것으로 보아 陰虛火動으로 血분에 熱이 생겨 나타난 증상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血熱을 치료하기 위해 當歸, 芍藥, 黃芩, 黃連을 기본으로 咳嗽에 쓰는 半夏, 貝母 등의 약을 첨가하여 처방한 것이다.

## 13. 實熱 의안

강홍진(姜弘晉) 정사도(正使道) 소속, 기강장장(騎舡將)으로 70여세.

몸이 마르고 얼굴이 희며 성격이 급하다. 6월 하순 입 안이 헐고 열이 나서 얼굴이 붉으며 대변이 막혀 잘 나오지 않았고 다른 증상은 없었다. 강홍진은 “지금 배안에 약을 먹는 사람이 많지 않은가. 나 스스로 (약을) 끊어겠다.”고 하였다. 桔梗, 黃連, 黃芩, 連翹, 大黃을 같은 양으로 하여 천에 싸서 복용해 보라고 보냈다. (그의 병이) 2-3일이 지나 모두 나왔다.

〔姜弘晉正使騎舡將也年七十有餘 形瘦色白性急 六月下旬 口中爛 發熱面赤 大便秘 無他苦 弘晉曰 今舟中服藥人多不自由煎煮云云 因桔梗黃連黃芩連翹大黃各等分 裹布令吞之 經兩三日 全瘳〕

按) 이 의안은 實熱로 생긴 증상으로 처방이 涼膈散<sup>14)</sup>과 비슷하다. 東醫寶鑑에서는 “藏府積熱口舌生瘡宜局方涼膈散(方見火門)回春涼膈散亦可<sup>15)</sup>”라고 하여 實熱로 인한 口糜의 증상에 두 종류의 涼膈散을 썼는데 이 의안에 나온 처방 역시 이들과 유사하다.

## 14. 濕痰 의안

종사도(從事道) 소속, 복강관인(卜舡官人) 이정만(李靑萬)의 질병을 기록에 따르면, 그는 호흡이 험떡거리며 빠르고 간혹 가슴과 배가 아팠으며, 자주 팔다리에 힘이 없었다. 진찰해 보니 六脈이 沈滑하고 몸은 살찐으며 성질은 沈重했다. 이미 7월 초하루에 진찰하였는데, 돌아갈 날이 촉박하였기 때문에 약을 주지 못했다.

〔從事卜舡官人李靑萬之病錄曰 氣息喘促 間有胃痛腹痛 徃或有四肢無力 診之六脈沈滑 形肥性沈重 既七月朔日診察 依歸期迫 不與藥〕

14) 연교 4.8g, 황금, 산치자, 길경, 황련, 박하, 당귀, 생지황, 지각, 적작약, 감초 각각 2.8g

15) 浚, 東醫寶鑑, 서울, 남산당, 1986. p. 242.

按) 이 의안은 처방은 나오지 않으나 환자의 형과 脈證으로 보아 濕痰으로 인한 증상일 가능성이 높다. 특히 沈滑한 脈은 11번 의안에서도 濕痰의 脈으로 언급된 바가 있다.

### Ⅲ. 결론

『韓客治驗』에 나온 14개 의안을 분석한 결과 여기에 나오는 의안은 환자의 이름, 나이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고 때로는 形色에 대한 묘사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증상도 매우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 치료 기록도 상세히 묘사되어 있는데 誤治를 한 기록까지 나와 있는 것이 특징이다. 樋口淳叟의 處方을 분석해 보면 黃芩, 黃連이 높은 빈도로 사용되었고 半夏도 여러 번 이용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증상의 원인을 濕熱이나 濕痰으로 파악한 것인데 이를 통해 樋口淳叟가 明代 의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Brain Korea 21 project in 2006  
이 논문은 2006년도 두뇌한국21사업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 Ⅳ. 참고문헌

#### <논문>

1. 車雄碩 외 2인. 桑韓醫談과 韓日醫學文化交流. 韓國醫史學會誌. 2004. 17(2).

#### <단행본>

1. 陳實功. 外科正宗. 沈陽. 遼寧科學技術出版社. 1999.
2. 許浚. 東醫寶鑑. 서울. 남산당. 1986.